



성도의 벗 11  
1969



# 영 감 의 멧 세 지



부대관장 **휴 비. 부라운**

사랑하는 형제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분쟁, 불안, 격동 및 혼돈 속에서도 세상은 전진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은 채 하나의 왕국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는 하나의 왕국이 세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왕국은 앞을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 중 어떤이에게는 그의 생애에 나타나는 원수를 막아 줄 권능과 세력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또 요셉 스미스, 브리감 영이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편에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지금이야말로 결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서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정욕과 욕망을 제어하며, 금지된 길로 타락시키는 것들을 억제하는 준비를 갖출 때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11월 1일  
(통권 제52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제 5 권 제 11 호

순 서

1969년 11월호

권두언 : 지상생활의 위대한 목적 데이비드 오. 맥케이 ..... 1

■ 특집 : 계보 ■

세계 기록대회 더그라스 디. 팔머 ..... 3

계보는 왜? 테오도르 엠. 버튼 ..... 4

신앙인의 기록 제이 엠. 토드 ..... 7

산에 오르기 리드 에이치. 부렛포드 ..... 13

주일학교 : 우리 모두는 대리 교사 낸 오스몬드 그라스 ..... 15

■ 어린이 성도의 벗 ■ 동양의 전설 (중국 동화) ..... 16

조그만 등불에게도 비밀이 있다 ..... 19

최선을 다하라 리차드 엘. 이반스 ..... 21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신다 스테판 엘. 리차스 ..... 22

구세주와 한 약속 더블유. 딘 벨납 박사 ..... 26

용기라는 이름의 산에 올라 웨인 린 ..... 27

최후의 시도 찰스 알. 퍼든 ..... 28

부산지부 헌당 ..... 30

내외소식 ..... 31

메콩키 형제 방한 ..... 32

진리의 말씀 : 자격 있는 자가 되며 리차드 엘. 이반스 ..... 뒷표지

표지설명 : 계보 분야는 말일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길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 분야이다. 지난 130년 동안 수십만의 교회 회원들은 자기 선조들을 위해 신진 의식을 집행하는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하여 왔다. 교회는 회원들의 이러한 사명을 돕기 위해 세계 각처로부터 계보에 관한 기록을 수집 보관해 두며 세계 최대 규모로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표지는 교회 계보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의 몽타주이다.



# 지상생활의 위대한 목적

대 판 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 10 : 10)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약속 가운데 가장 큰 것이며, 이런 약속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속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갖다 주는 매개체와 대리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나 성공이나 평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 : 6)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왜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창세기 3:

19)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래로 주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영성을 깨우쳐 주는 일을 목적으로 삼아오셨습니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인간은 생의 목적으로 영적이거나 아니면 감각적인 것 둘 중의 하나를 택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중 하나에 그의 행위나 사고를 집중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성이 우리의 사고 중에서 늘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떠나도록 명받은 후, 인간은 영적으로 깨어남으로서 비로소 느리지만 지속적인 진보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인간이들의 짐승보다 위에 서게 된 오직 하나의 이유는 영적인 은사를 소유한 때문입니다. 영적인 힘이 상실된, 우수한 지능만으로는 인간은 더욱 잔인한 짐승처럼 되어질 뿐입니다.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의 정신과 영혼과 노력을 집중하여 단순히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그런 일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인생의 목표를 영적인 특성을 얻는데에 둘 것인지를 시험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마련하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생의 모든 기억을 상실한채 이 땅 위에 놓여진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고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는 삶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아 갈증을 씻고, 배고프면 들의 과일로 배를 채우고, 낮이면 따스한 햇빛을 즐기고, 밤에는 잘대나 나무잎 위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동물의 가족으로 추위를 막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와서, 잡아놓은 짐승의 고기나, 맛있는 과일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그와 대항하여 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만이 삶의 목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경에서는 인간의 이런 상태를, “인간이 타고난 대로 육욕적이며 관능적이며 악을 좇게 되어……” (엘마서 42:10)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고 복음 계획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일에 그 마음을 집중하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 (신명기 12:6) 을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제안, 아니 계명을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높이신 분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그것은 영적 성장의 첫단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욕구를 정복하며,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높이신 이에게 경의를 표시하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그의 창조주에게 가까이 가게 되며,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몇년전,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참으로 많이 진보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잘 살펴볼 때 인간이 진보했어야 할 수천분의 일도 진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소위 문명화 되었다는 이 세상에 이기주의와 미움과 시기와 정복과 집단 살해가 무자비하게 횡행하며, 사랑과 화평과 즐거움은 인간의 마음과 가정과 생활에서 추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문명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과 영적인 이상을 갖는 일이 필요한 때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문명은 이미 인간의 마음에 그려 보거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성장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비천한 성품대신 고귀한 성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닫지 못한다면 현재의 문명 상태는 지극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돌려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목표로 하셨던 영적인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사모하며 사는 자는 구세주의 다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 14-6)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행복이나 영생을 얻으려면 커다란 일 한가지만을 해 치우면 된다는 생각이 어리석은 일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위안과 온전함을 가져다 주는 일은 친절과 미소로써 이루어 나가는 조그마한 일들과, 늘 지켜야 하는 조그만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커다란 희생이나 의무 이행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고상하고, 지적이며, 영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권고하며, 더욱 풍성한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기를 권고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히 품는 생각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집중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곳을 가장 확실히 약속해 두며, 그들의 가정을 안락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생의 진로를 택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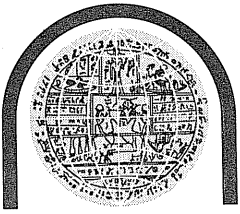
그러나 생활을 마련한다는 것은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을 지언정 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생활을 마련한다는 것은 긴 삶의 여행에 우리를 운반해 주는 기계를 계속 움직이도록 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생활을 마련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이룩하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단지 존속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이 고역이며 단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쾌락만을 얻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무와 환멸 뿐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의 목적을 부유한 자가 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 보답으로 그들이 받는 보상은 이기심과 삶의 아름다움을 아주 조금밖에 볼 수 없게 되는 어리석음 뿐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자주 실망과 비천함 가운데 한줌의 재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삶의 목적이란 하나님의 영감에 인도되어,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므로써 완전한 인간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따르는데에 있습니다.

인간이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길을 따라갈 때, 이 인생이란 참으로 훌륭한 것이어서,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 (엘마서 12:24) 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시간이 끝난 후, 인간이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는 그가 창조주에 대하여, 그의 형제에 대하여, 또 그의 친구에 대하여, 행한 일에 대한 기록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





# 세계 기록 대회

더그라스 디. 팔머

● 문자 그대로 지상의 보물 창고이며, 기록을 보관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희소식이 되며, 역사와 계보에 관심있는 자들에게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계보 협회, 이 계보 협회가 1894년 11월 조그마한 단칸방의 도서관에서 부터 시작하여, 차츰 성장하여 조직이 완료되고 세계적인 활동 무대를 갖게 된지 올해로 68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쏘트레이크에서 기록에 관한 세계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근 10,000명에 달하는 사학자, 계보학자, 도서학자, 기록 보관인, 전자 계산원 및 마이크로 필름 전문가들이 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미국, 유럽, 중앙 및 남 아메리카, 멕시코, 캐나다, 동남 아시아, 태평양 제섬과 세계 방방곡곡에서 기록 관리자들과 직업적이거나 아마추어인 계보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이 대회의 주제는 “변하는 세계에서의 기록의 보존”이었다.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목적이 무엇이며 또 대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란 어떤 것일까? 폭풍우나, 화재나, 인간이 파괴하거나, 낡아서 못쓰게 되는 것으로 부터 우리는 어떻게 또 어디에 이 기록을 보존해 둘 수 있을까?

사실, 중요한 세계적 문서나 원본이나 역사서나 전기나 다른 계보학상의 “발견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필요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랫동안 고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이 근래에 와서 계보 협회의 확장된 마이크로 필름화 계획에 따라서 안전하고 참고 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각종 자료의 보관 창고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계보 협회는 이제까지 670,000권의 마이크로 필름을 수집하였으며 이것은 300페이지 짜리 책 3백만권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것에 더하여 계보 협회가 완성한 6백만에 달하는 완성된 가족단위 기록, 3천 6백만에 달하는 개인에 대한 카드철, 색인표, 90,000권에 해당하는 책의 수집 등을 생각해 볼 때 이 기록 보관 계획이 얼마나 방대한 사업인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계보 협회는 80개의 지부 도서관을 갖고 있으며 매일 500 명의 방문자에게 일일히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매주일 세계 각지에서 보내오는 1,000권에 달하는 새로운 마이크로 필름을 받고 있다.

“우리는 기록을 완전 무결하게 보관하려 합니다.”라고 계보협회의 관리 책임자이며 부회장인 데오도르 엠. 버튼 장로는 말했다. 그는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세상 사람들 중에 스스로가 갖고 있는 기록을 잘 간수하려고 하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록이 잘 보관될 것입

니다.”버튼 장로는 1964년부터 이 협회에서 일해 왔으며 이번 대회의 집행위원의 한 사람이다.

버튼 장로는 기록 보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에 또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우리가 각국의 기록 보관인들과 접촉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기록이 잘 보관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계보 협회는 쏘트레이크 시 남동쪽 리틀 커튼 우드 계곡에 있는 화강암 벽을 600피트나 뚫어 화강암 산중 기록 보관소를 만들어 최신 기록 처리 및 보관 시설을 마련해 놓았다.

계보협회는 여기에 보고된 “수집품”들을 언젠가는 온 세상에 전시하려고 했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듣자마자, 그 계획은 급속히 번져가서 세계의 방방곡곡에 있는 기록 보관인들이 귀중한 자료들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일에 협조하고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사업 계획 이외에도 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 출처나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버튼 장로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외국에 나가서 그들과 얘기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곳에 오도록 된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도록 애쓰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도록 애쓴다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계보 협회는 가장 쓸모있는 기록들이 어떤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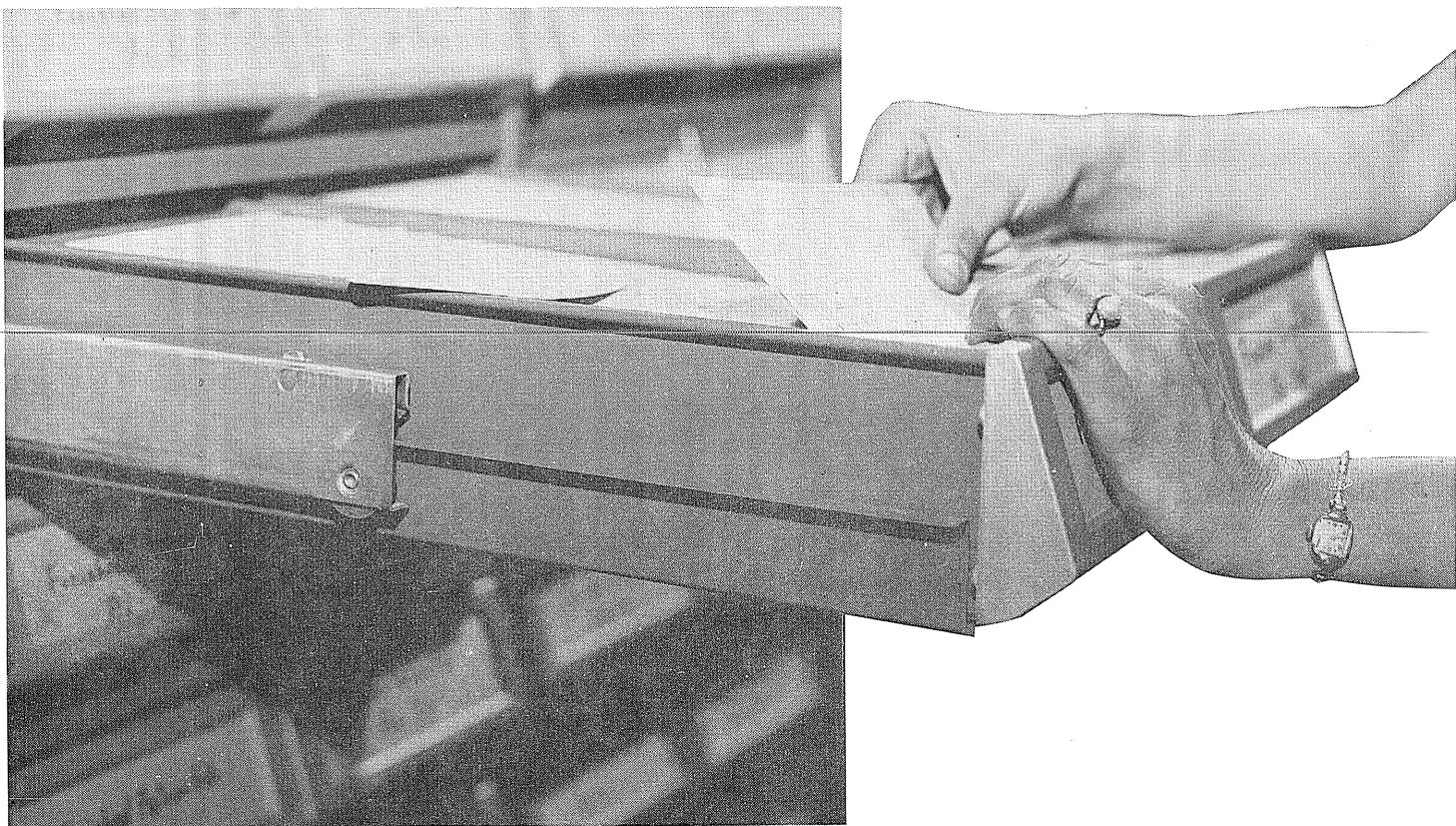
버튼 장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처음 일본에 사람을 보낸 것은 4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쓸모있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일본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처음 보낸 사람을 일본인들은 골동품 수집가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번에 보냈던 사람은 일본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의심을 털어 줄 수 있었고 마침내는 많은 자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 280명의 연사가 이 대회에서 이야기하였고 그중 약 100 명이 박사 학위를 소유한 사람이었다. 이 대회에서 흥미를 끌었던 연설 제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보리 코스트에서의 문서 작성 및 보관 상황” “스웨덴의 재판 기록” “일본에 있는 미국인. 그들의 기원, 과거 및 현재” “이스라엘의 유대인 기록 수집” “동부 태평양 폴리네시아인의 가계도와 족보” “퀘이커 교도의 미국 이민” “스콧랜드의 1707년 이전의 민병과 군대 기록” “전자파에 의한 먼데 있는 기록의 전달”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에서의 조상 찾기” “아이슬랜드의 재판기록” “미국에서의 교회 기록” “1800년 이전의 영국 노동자들의 가계 기록의 발달”

40 여개국에서 저명한 사람들이 연사로 혹은 손님으로 참석하였으며 그들 중의 몇분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의 소련 기록 보관소 소장 제나디 알렉산드로 비치 비보브, 런던 신문사의 신문인 톰슨 경, 스콧랜드 에딘바라에서 온 리안 몬크리프 경, 불란서 파리에서 온 폴스 공작, 유명한 오스트리아 계보학자인 칼 푸레데릭 폰 푸랭크 남작, 페루인 계보 연구소 소장인 길레르모 로만 빌레나, 미국 계보학회 회장인 켄 스트릭커 로다 박사, 미국 국립 기록 보관소장 제임스 비. 로우즈 박사, 홍콩 대학의 상린로 교수, 남 아프리카 계보협회의 코넬리우스 파마 박사, 이스라엘 역사학회 회장인 다니엘 제이. 코헨, 카이로에서 온 이집트 학자 라비브 하바치 박사, 아이보리 코스트 주미 대사인 티모디 잉케타 아호우아. ○



# 계보

데오도르 엠. 버튼 장로.

십이사도 보조

계보협회 부회장 및 관리책임자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계보에 관하여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원인은 계보 자체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류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감에 따라 그 복음이 신약시대나 지금의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좁은 의미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시대로부터 예언자를 통하여 현대의 인간에게 이르기 까지 전해져 온 만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어느 시대에나 충만하게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세대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거나 그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깨닫고 받아들일만하게 늘 복음을 알게해 왔습니다. 예언자 엘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방언의 나라에 각각 보시기에 합당한대로 지



헤로쎌 그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뜻을 따라 지혜로 다스리심을 우리가 아느니라.”(엘마서 29:8)

우리는 민족과 언어에 구애됨이 없이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를 승영의 길로 이끌어 올리려 하며, 모든 위대한 교사들이 알고 있듯이, 인간의 영적, 지적 능력이 동일하지 않음을 주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곧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은 일부분, 혹은 망서리면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은 자나 능력이 모자라는 자가 똑같이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이해하고 자기 생활에 응용할 수 있을 만큼의 진리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경의 예언자는 이같은 생각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27)

주께서는 모든 육신을 한결같이 여기시며, 의를 행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고 악한 행실을 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단지 죄와 불의한 것 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칠 뿐입니다. 꼭 갚으시는 하나님은 의의 교사로서 의로운 자에게 보상하십니다. 물론경의 예언자이신 암몬은 이 생각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께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든 사람들을 살피 주심을 우리가 아노라.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낱알이 헤아리시고 그의 자비로우심은 온 세상에 임하시는 도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주께 드리는 커다란 감사이니, 진정으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엘마서 26:37)

그리고 니파이는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또한 주는 범사를 인간들에게 간절한 뜻으로 행하시며 만민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

# 사업은 왜?

나아오는 자면 짐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인지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니파이이서 26:33)

이 세상 방방곡곡에 만민을 위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에는 이와같은 숭고한 생각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8:9-20)

복음은 어떻게 가르쳐 지도록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 진리에 대하여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는 특별한 전달자에 의하여 가르쳐지게 된다고 하였습

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에 마련된 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기회를 가질 때까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워졌던 초대 교회의 회원들이나 사도들도 이것에 대하여 좁은 소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선교사업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전하여 진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8-29)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보낸 서한문에서 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물은 침례를 의미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명이라.”(베드로 전서 3:18-20)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은 자들의 영에 가르쳐져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베드로 전서 4:6)

죽은 자들을 위한 대리 구원 사업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실제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행했던, 죽은 친척들을 위하여 대신 침례를 받은 그들의 의식을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 전서 15:25)

히브리인의 위대한 예언자의 한 사람이었던 말라기는 앞으로 올 일들을 예언하는 가운데, 인간의 마음이 말세에 겪어야 할 주목할 만한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주께서 이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기를;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라기 4:5-6)

1836년 엘리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마음은 조상에게로 돌이켜지기 시작했으며 우리의 조상이 되시는 이 예언자의 예언은 자녀들에 의하여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와 능력이 복음의 회복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짐에 따라 선교사들은 주님의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한테 모으고, 우리 조상을 찾아 아래의 계명에 따라 그들을 위하여 신성한 의식을 행하도록 격려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

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가복음 16:15-16)

우리는 영계에 돌아간 모든 사람은 온갖 질병과 전통과 미신과, 악한 자의 통치와 합당하지 않은 자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더욱 자유스럽게 그곳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는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드리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의로움 가운데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진리를 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의 기록을 찾고 있으며 그들을 족보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여 가족의 유대를 갖도록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친척들을 위하여 대리 침례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영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영들이 저주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복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영계에 가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이 의식을 받아들이게 되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며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조상에게 주어진 신권의 반차 안에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가족을 연결하여 완전하게 커다란 하나의 가족 단위로 만들려는 우리 말일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라. 자녀의 마음을 자기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며 선조의 마음을 자기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를 힘쓰라.

“저들이 이르노니 유대인의 마음을 예언자에게 돌이키며 예언자의 마음을 유대인에게 돌이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온 땅을 치지 않게 하며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타 없어지지 않게 하라.”(교리와 성약 98:16-17)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 형제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상의 만민을 사랑과 우애 가운데 머물게 하는 참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만민에게 확신시키는 일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이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계보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야말로 이 지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



# 신앙인의 기록

제이 엠. 토드

● 말일성도의 족보 연구에 관한 기록이나 이에 부수되는 신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귀중한 영적인 경험이 없이는 완전히 기록될 수 없고 수행될 수도 없다.

사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스럽게 간직한 일에 관한 강한 간증을 듣지 않고 이 일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말일성도와 계보 또는 그 최종 목표인 신전 사업에 대하여 토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의식을 수행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서 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더 명백하게 나타난 활동은 없다고 하겠다. 꿈, 시현, 말씀과 영적인 인도와 평범하지 않은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은 계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일성도에게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교회의 초기 간행물은 계보 활동을 다룬 이러한 영적인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최근에 와서 통신망이 전세계를 연결하여 주고 대체로 사회내에서 불가사의라 불리우는 일의 기록에 무관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감에 따라 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기록을 신앙인과 가족의 모임에 제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데서 새롭고도 폭넓은 활동을 육성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이 중요한 활동을 하는데서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간증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현대적이며 최근의 사건이 이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수천의 비슷한 사건의 전형이 된다.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한 비밀 보장의 권리와 그 일에 대한 신성성 때문에 그 기사는 익명으로 보고된다.

선조에 대한 자료를 얻는 일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보고서는 다음 기사에서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1953년에, 나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놀웨이 지부 기록을 찾아 그분의 가족 기록서를 완전히 기입하기 위하여 교회 역사 편찬 위원회에 갔습니다. 나는 두 번씩이나 그곳에 가서 필요한 기록을 다 찾아 보았으나, 그 가족의 기록서를 완전히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번 더 가서 관계 인사에게 오솔로 지부에 대한 다른 기록부가 없는가를 알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다 보여 주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찾아보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찾아보고 난 후에 그는 되돌아 와서 기록부 한권이 분실되었지만, 그것을 찾을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방으로 들어가서 기록부를 훑어 보았을 때 나는 거기서 잃어버린 가족들에 대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내가 기록부에서 베끼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의 존재가 나를 둘러 싸고 있음을 강하게 느껴 거의 베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존재를 느낀 것은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을 기꺼이 승인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놀웨이인의 혈통을 계속 찾아 수백 명의 이름을 밝혀 내어 신전 의식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은 말일성도는 이러한 일을 지시하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계보 도서실에서 필리모어 결혼 색인 표에서 영국에서 오신 증조 할아버지의 결혼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몇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에 관한 자

료를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헛수고로 보냈다. 점심때쯤 되어서 나는 마이크로 필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부모에게 그의 자녀들이 인봉되었는가를 조사해 보려고 솔트레이크로 가 보리라 생각했다. 내가 집에 가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때는 나의 네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다. 내가 버스를 타려고 급히 서두르고 있을 때, “왜 도서관에 다시 가서 조지에 대하여 찾아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 강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지워 버리고는 버스 정거장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나의 발걸음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도서관쪽으로 걸고 있었다. 분명히 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왜 도서관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는가를 이상히 여기는 채로 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나는 곧장 필리모어 결혼 색인표가 꽂힌 서가로 가서 색인표 한 권을 집어 들어서 급히 책을 들추어 보았다. 그러자 나는 거기서 나의 증조 할아버지의 결혼에 관한 기록을 발견하였다. 오랫동안 문제되었던 것이 내게 이렇게 빨리 그리고 기적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단 말인가.”

이와같은 기사는 수없이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나의 남편의 할아버지는 영국에서 이민 온 개종자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끔 옮겨 다니는 소작인 이었다. 조그마한 까만 책에 그는 그의 열 명의 자녀와 그의 부모와 두 형제와 한 자매의 이름과 탄생한 날자를 기록하였다. 그 기록에는 그것이 완전한 기록이었을가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말이 없었다.

“신전 의식을 마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가족 기록서를 작성하여 계보 협회에 제출하였으나, 관계 자료가 다 조사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 영국에서는 탄생한 모든 어린이를 등록해야 한다는 법률이 통과되어 1837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기 때문에, 영국의 씨머셋판에 써 보내면 이 가족의 탄생과 사망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나는 그가 살았던 곳에 있는 영국 국교의 교구 등기부를 찾아 보았으며, 1941년에 살아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가족들에게 편지도 내 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래서 나는 씨머셋판에 편지를 냈다. 나는 확실한 교구 등기부나 종파가 밝혀 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도움도 베풀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때까지 나는 인구 조사서나 주의 기록을 살펴 보는 등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여 보았다.

1956년 1월 15일 아침에, 남편이 직장으로 떠나고 아이들이 학교로 떠난 다음에, 나는 부엌에서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펼쳐 놓고는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이 일이 참된 것이라면 그리고 제가 이일을 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더 해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굵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는 한 단어 즉 감리교 라는 글자에서 내 시선이 오랫동안 끌려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곧 감리교회 안의 어느 곳에 이 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곧 알아 챘다.

목사의 이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수월하게 회답 받을 수 있게 편지쓰는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나는 그 지역의 감리교회 장에게 편지를 냈다. 얼마 안가서 어느 감리교 목사가 엘렌이라는 부인이 내 남편의 증조 할머니로 판명되었다는 자료를 동봉한 편지를 보냈다. 다른 목사가 두번째 편지를 보내 주었는데 그는 엘렌은 그의 어머니라고 나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있었던 분은 바로 그 목사의 아저씨였던 것이다. 그후 일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그는 나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사를 다니며 전전공공하는 동안에 나의 남편의 할아버지가 나신 날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기록서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저 세상에 계신 어떤 분의 도움이 없었던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망한 사람이 시현으로 나타나는 일도 보통 있는 일이다. 다음 이야기는 두 명의 자매가 한 말이다.

“1968년 12월에 내 동생과 나는 우리 쉬어러 집안의 족보에서 빠진 난을 채우기 위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여 얼마 돕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나는 솔트레이크에 있는 제보 조사국으로 가기에 앞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내 동생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정한 대로 도서실에서 만나 일층에서 남쪽에 지정된 책상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앉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책상에 한 명의 여인과 두 명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책상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는 우리와 마주 하였습니다. 남자들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우리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동작만 낱낱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록부를 찾아 보려 책상을 떠나려 하자, 그들은 함께 머리를 모으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오전이 흘러 갔습니다. 그들이 너무깊

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돌아보고 생김새를 뜯어 보며, 내가 혹시 아는 사람이나 아닌가를 생각해 보려 애썼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는 나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인은 자신을 나에게 알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우리가 점심을 먹으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섰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도 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에게 다가가 보려 했지만, 무엇인가가 나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점심을 들러 나갔고, 나는 그에 대한 생각을 지워 버렸습니다.”

다른 자매가 그 다음의 말을 이어 나갔다.

“점심을 들고 난 뒤에, 우리는 카드철에서 쉬어러가의 역사에 관한 것을 찾아 보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인 쉬어러가에 대한 책은 몇권 찾아 보았지만, 아일랜드에 있는 쉬어러가와 영국에서 온 쉬어러가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조사원도 우리의 가계는 아마 빠진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록부를 보고 있을 때, 도서관에 쉬어러가의 역사에 관한 것이 있으니, 가서 보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나는 곧 가족 역사 보관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인이 ‘에스(S)’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방해하지 않고 ‘알(R)’란에서 몇권의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다시 나는 그 책꽂이 있는 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가 가자, 아직도 거기에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은 ‘무얼 찾아 보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저는 쉬어러가에 대하여 찾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인은 몸을 반쯤 돌려서, 지체하지 않고 나에게 미국인 쉬어러가에 대한 작은 책을 들려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쉬어러가에서 몇몇이 코롬웰이 아일랜드로 데리고 갔음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책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우리들은 그림도 몇 장 보았습니다.

날이 다 저물었으므로 우리는 다음 날 그 책을 좀더 자세히 연구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가 다 되어서 우리는 다음 날 다시 와서 그 책을 자세히 살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층으로 내려와서 막 정문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언니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그 책에 있는 사진을 보아야겠어.’ 그에

나도 곧 '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야.' 라고 대답 했습니다.

그 책을 다시 펼치자 우리는 제임스 슈어러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아주 낯익은 얼굴인 그의 부인 해리엇 브라운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분이 오전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이구나.' 나는 언니와 여러가지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점에 대해서만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확실히 맞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우리는 해리엇 브라운이 말은 일은 우리들이 그 책을 찾을 수 있게 해 준 것이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증조 할머니가 이 가족을 알게 해 주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둘 중에서 아무도 남자들의 얼굴은 기억해 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많은 행위에 응답하여 이러한 경험으로 축복받았음을 확실히 간증드리는 바입니다."

꿈 속에 나타난 경우에 대한 기사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브리스벤 스테이크(오스트랄리아)의 윌리엄 이, 워터스부장은 그 스테이크 내에서 남편이 비회원이었던 어느 부인이 겪은 일을 이렇게 보고한 바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부인은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남편은 그 부인이 앉아있는 정원으로 들어오는 문을 통과하지 못하여 애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남편은 그 부인에게, "나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오. 자물쇠는 당신쪽에 있는데 열쇠는 자물쇠 안에 있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여 그 여인은 남편의 신전 의식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었다.

특별한 신전 의식 사업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 역시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에 어느 대학 교수와 그의 부인은 양자로 데려온 어린 아이를 신전에서 그들에게 인봉시켰다. 그 부인은 신전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께서 이 아이를 우리들에게 인봉시키고 계셨을 때, 나의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의식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당신의 오른 편에서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대낮에 본 것과 같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래에 다른 경우는 1968년 4월 30일에 어느 신전 방문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었다. "내가 대리 행사를 하고 있었던 그 자매가 나에게 자기 생일날이 틀렸기 때문에 곤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분은 자기 이름의 발음법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보 협회에서 족보 날자를 얻은, 기본이 되는 기록서를 얻은 것보다 성령의 시현이 더 명백하게 나타난 적은 없다. 이상하고 신비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기록서

들은 계보 협회 도서관에 입수되었다.

다음의 것은 도서관 사람들이 보고한 것을 몇개 들어 보았다.

얼마전에 우리들은 오래전에 은퇴한 영국의 어느 성직자가 수십년에 걸쳐서 신중하게 수집한, 예전의 영국의 성명주소록을 600권 이상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곳 가까이에 속사를 배정받은 몇몇 미군들의 개인적인 행위와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아 자신이 오랜 동안에 걸쳐 수집한 것을 미국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 증여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군들의 요청으로 그는 쏘트레이크에 있는 계보 협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경우: "어느 젊은 귀환 선교사가 뉴 잉글랜드에 있는 디어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의사의 미망인이 가지고 있던 계보와 사적 자료의 목록을 협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취미로 어쩔 페노스콧 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방 기록을 수십년 동안 수집하였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의사의 부인과 접촉하면서 우리는 이를 동안 그 기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수집물은 뉴 잉글랜드에서 그 종류로서는 최대의 개인 수집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왕진하며 오십여년에 걸쳐 수집된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치사를 한 뒤에, 우리는 그 부인에게 다른 기관에도 그 기록에 대한 전적을 내 볼 것을 권했으며, 그 부인에게 그의 수집물의 구입에 흥미를 보일지도 모를 미국의 큰 도서관명을 모두 대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동부에 있는 어느 큰 도서관을 방문하여 막 팔려고 하는 찰라에 저항하기 어려운 어떤 힘에 이끌려 계약을 취소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계보 협회에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은 교회에 가입했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왜 이러한 기록이 교회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강하게 느꼈는가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구원의 의식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고인이 된 선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때에만 종교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신전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성스러움을 반영하는 사건은 런던 신전관리장을 지낸 바 있는 셀보이 제이·보이어 씨가 보고한 것이다.

"내가 런던 신전을 관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맥케이 대관장에게 그 일을 준비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부부는 다만 한 쌍밖에 되지 않는데 신전에서 행위할 사람을 런던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습니다. 대관장



님은 ‘명단을 모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알아보겠오’, 라고 회답하셨습니다. 그런 후 1958년 6월에 헌납식을 마치고 난 뒤 토요일에 벵케이 대관장님은 “명단을 작성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하고 대답하고, 명단을 꺼냈습니다. 나는 12쌍의 명단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대관장님은 ‘자, 명단을 읽어 보시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관장님은 대체로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거니와, 약속조차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모 형제 자매님”하고 읽자, 대관장님은 ‘그들은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부부를 읽었습니다. 대관장님은 ‘그들은 안되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명단을 다 읽고 나는 신전 행사에 필요한 여섯 쌍의 부부를 택했습니다. 나는 명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몇몇 부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예언자께서는 각 사람에게 대하여 옳았습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까지 있었습니다.”

계보와 신전 사업은 교회의 회원들이 받은 개인적인 축복에 의하여 진척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수십 만명의 말일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과 약속의 이행에 의하여 지도를 받고 계속해 왔다. “당신은 나라 안밖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조의 기록을 탐구해 보면 과거의 기록은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특별한 임무이며 여러분이 성실히 한다면 주님이 살아 계시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으로부터 복음의 빛 속으로 부름을 받아 당신의 선조를 속박으로부터 풀게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며 이제 그들의 영이 당신에게 이를 것이며 그들이 당신의 앞 날에 큰 영향을 미쳐 줄 것입니다.”

이와같은 거룩한 임무에 자극을 받고, 설명할 수도 없는 힘에 이끌리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전 세계에 있는 말일성도들이 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 그 자체까지도 연장하게 되었음을 간증한 것에 어떤 이상이 있겠는가?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그들의 신전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영감에 찬 방법으로 희생된 사람도 수천명이 된다.

“내 생애에서 얻은 큰 경험은 신전에 오기 위하여 교회의 회원들이 치룬 희생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라고 쉘트레이크 신전 관리장단의 제이 보좌인 에드워드 에이취. 쏘렌슨 형제는 말했다. “그들은 들어 오기 위해서는 옳은 일이란 거의 모두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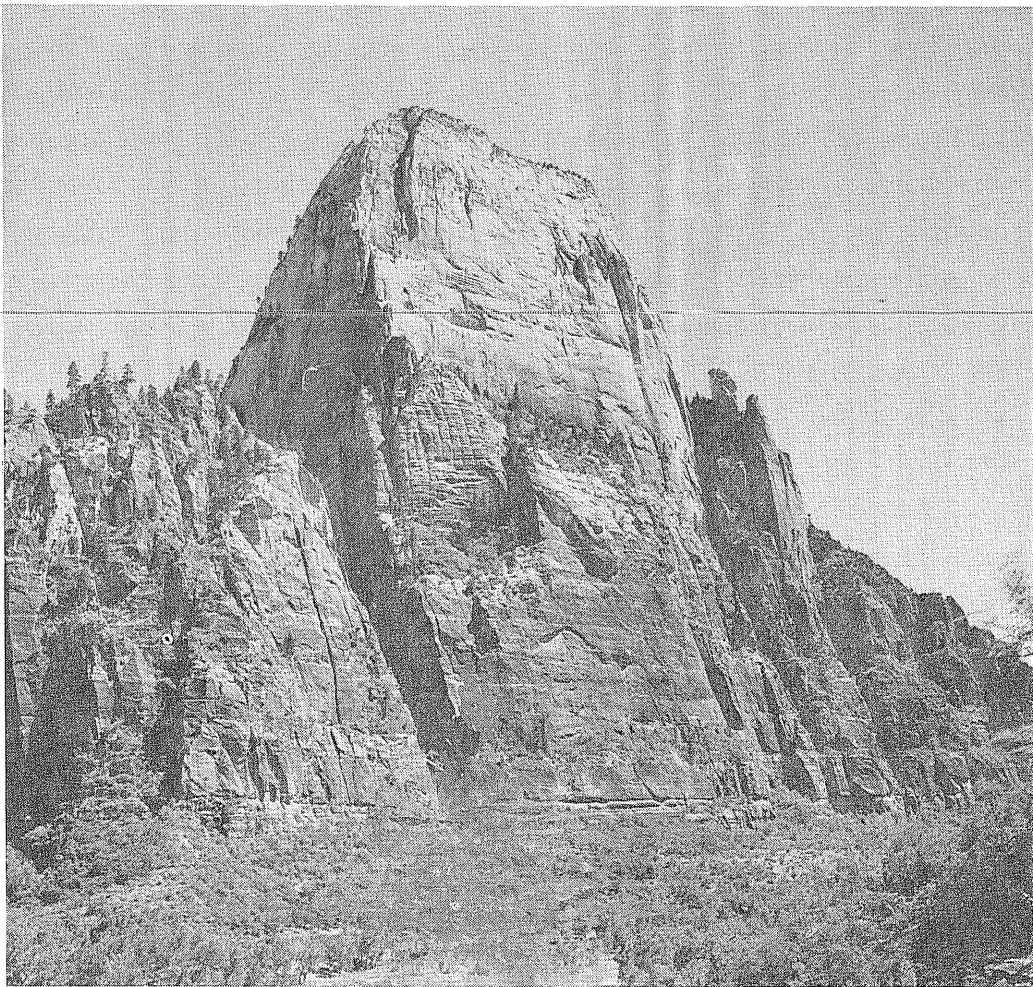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와 신정 사이의 금요일에, 어느 남자 분과 그 부인과 다섯 명의 자녀가 뉴저지에서 왔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오셨는가고 묻자, 그들은 미국의 평야에 깔린 나쁜 길을 피하기 위해서 남부 지방을 거쳐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휴가를 받았고, 아이들은 방학이 되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쓸 돈으로 신전에 와서 인봉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해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전에서 인봉되는 것으로 받게 될 은사를 기대하는 것 외에 아무런 선물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열명의 자녀가 믿는 어느 서반아계 미국인 가족이 신전에서 인봉 받기 위하여 텍사스로부터 소형 트럭을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한 경우도 있다.

쉴트레이크 신전의 오 레슬리 스톤 관리장은 교회 전체의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영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중요한 일을 하며 신전에 계셔야 합니다. 신전 사업에서 원래 상정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일선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쉘트레이크 신전에는 일할 것을 지원하는 사람이 일천명이 넘습니다. 백만장자도 보통 노동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임무를 지니고 일하고 있습니다. 은행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고 의사며 미장이와 기술자와 기타 모든 직종의 사람이 있지만, 신전 안에서는 형제애의 정신으로 모두 다 영의 세계에 있어 우리가 사랑하며 참으로 살아있는 선조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일을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일이 신성한 것이라는 타는듯 한 간증을 얻지 못하고서는 이 일에 자신이 몰두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것은 계보와 신전 사업을 한 사람들이 느낀 영이고 또한 실제 경험한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



●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 : 52)

“또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요리와 성약 93 : 13)

소녀의 슬픔은 깊고도 심각한 것이었다. 소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나는 어린 엘마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심한 괴로움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음에 영원한 고통에 쌓여 있었느니라. 참으로 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한 나의 모든 죄와 간악함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멸망의 구덩이로 밀어 넣었으며, 나의 죄스러움이 말할 수 없이 컸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힌 바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청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나의 영과 육체가 한꺼번에 없어져 주었으면 좋으리라” (엘마서 36 : 12-15)

이 소녀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 뒤에 소녀는 회개하려고 참으로 애썼다. 소녀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원리의 의미를 내면화하여 생활하는 중에 그러한 것을 이행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였다. 소녀는 학교 공

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소녀는 지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성장했다.

그런 다음에 소녀는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소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느꼈으며 그녀의 태도에서 더 나가서는 그녀의 생활 전체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회개가 완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엘마가 느낀 것 같이 생각할 것이며, 단테의 저주받은 인간들이 지옥문에 새겨진 비명 “이곳에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라는 글귀를 읽을 때의 감정은 똑같이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적극적으로 대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이에는 각 사람이 이해해야 하는 가장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 의 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번 거듭 밝히셨다. 그 두 분은 구세주께서,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지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자라기를 바

# 산에 오르기

리드 에이치. 브렛포드

라신다. 다음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두려워 말라. 어린 양떼들아.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교리와 성약 6 : 34, 35)

“.....저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의 가슴에는 저들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가득한지라.”..... (교리와 성약 101 : 9)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사랑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라. 이는 징계함으로써 저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니,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왔음이라.”(교리와 성약 95 : 1)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의도하고 계시는 바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의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 계속적인 성장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혹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까지도 참지 못하고 안달하게 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자라고 성장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은 20살이나 30살가량 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사

람이 미숙한 또는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슬픈 감정을 느낄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육체적으로 성숙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단 시일내에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성숙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로는 수많은 것들이 스스로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아들 엘마는 회개를 하여 그에 대한 구세주의 사랑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 엘마는 구세주에게 개인적인 약속을 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음을.....보라.....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의 결실로 무한히 큰 기쁨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온갖 재난과 괴로움과 갖가지 고통에 처했을 때 위로 받았으며,” (엘마서 36 : 23, 25, 27)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서로서로를 도와 주는데 도움이 될 마음가짐이다. 부모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대할 때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고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부모는 그들에게 구세주의 원리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며 그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관용해 주신다.

## 죄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함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은 제한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율법으로나 자비나 정의나 심판으로 성별될 수 없나니……”(교리와 성약 88 : 35)

## 회 개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나는 확실히 그 잘못을 뉘우쳐야 한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가 왜 실수를 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죄 그 자체가 일종의 형벌이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마서 41 : 10)

## 용 서

구세주께서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도울기 위하여 몸소 많은 일을 하셨다. 그는 대속의 희생도 하셨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만 믿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9 : 16)

예수께서는 만일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룬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 : 42)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에 대한 중요한 점을 모로나이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다.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을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 : 4)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했다.

“그들이 입들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심히 멀도다.”(요셉 스미스 2 : 19)

\* \* \*

내 앞에 앉은 소녀의 슬픔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 소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에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소녀는 자신의 영이 거룩하다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우리들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의 영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느 정도 그의 신성을 물려 받았다. 모든 인간은 잠재적이며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이 지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겪은 경험으로 인하여 그 신성한 일면을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우리들 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서 만족하게 되는

일에 더 주력해야 한다.

2. 소녀는 그리스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전 생애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속 되어 나가야 할 과정이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추구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더욱 많이” 주실 것이다.

3. 소녀가 실수를 하면, 스스로 그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 소녀는 또한 주님께 그리고 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교리와 성약 59 : 12)

그러나 그 실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못된 것을 나타낼 때에는 조심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4. 소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로서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나 주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교리와 성약 64 : 7)

5. 소녀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리와 성약 69 : 9)

베드로가 주님에게 그가 얼마나 그의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가를 물었을 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마태복음 18 : 22)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거룩한 완성을 목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같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 : 32)

이러한 절차에 따르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간은 실수를 하거나 미끄러 떨어질 수도 있으나, 인간은 늘 자신을 일으켜 세워, 자신이 잘못한데서 배우고 그것을 시정해 나가며 산을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는 동안에 참 기쁨과 희열을 맛보게 된다. 언젠가 그는 성별될 것이다.

“…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 : 1)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한복음 14 : 18—21)

○

## 우리 모두는 대리 교사

낸 오스몬드 그라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교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대리 교사이다. 구세주를 대신하는 대리 교사라는 말이다. 성령의 힘을 통하여 교사라는 숭고한 부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교사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합당한 교사는 예수의 지시에 쫓아 학생을 가르치게 된다.

유능하고 헌신적인 교사는 자기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데 따르는 불안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 교사가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분은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니삼 18 : 16)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훌륭한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분이 남기신 표본은 다음에 열거하는 4가지 근본 원리로 집약할 수 있겠다. 예수는 영감, 성실, 근면, 통찰력을 가지고 가르치셨다.

### 영감 : 주님께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중에는 영감에 의존한다는 것 보다 더 강조되는 내용은 없다.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요한 8 : 28)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마태 11 : 27)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요한 5 : 30)

예수는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었다. 경전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인정하게 된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누가 5 : 16)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마가 1 : 35)

부활한 몸으로 니파이 민족을 방문하신 그리스도는 모임 하나가 채 끝나기 전에 네 번이나 기도하기 위하여 자리를 뜨셨다. (니삼 19 : 19—31)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한다는 표본은 예수를 대신하여 가르치려하는 대리 교사가 쫓아야만 할 이상인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기도한 것 처럼 너희도……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 가운데서 기도하라.”(니삼 18 : 16)

### 기도의 조건

예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절대 필요한 조건도 제시하여 주셨다. 효과적인 기도를 좌우하는 속성의 하나는 신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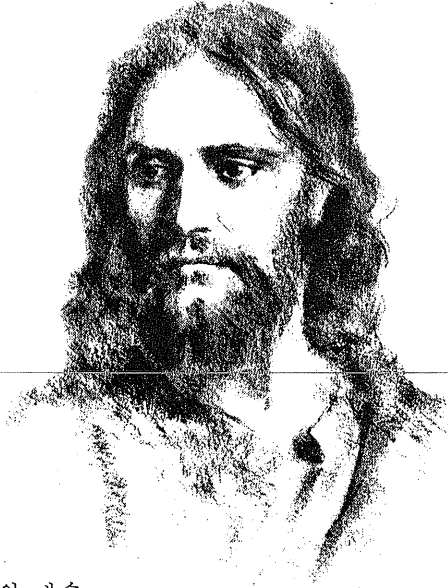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삼 18 : 20)

이외에도 효과적인 기도의 필수 조건이 되는 요소로서 강조하여 다룬 적은 없으나 “주여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소서.”라는 제자의 질문에 답변하신 예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어렵고 실망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친구에게 먹을 것을 꾸러갔던 사람이 들은 대답을 생각해 보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에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예수는 계속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가 11 : 7, 8) 이와 같은 진리는 한 도시의 과부가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 결국은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는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누가 18 : 3—5)

### 성실 : 진실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또한 기도할 때에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본의 두번째 원리가 된다. 교사는 성실하여야 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지상에

20페이지에 계속



### 15페이지의 계속

서의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 유혹과 싸워 이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욕망을 적절히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4절)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여서는 안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7절)

이 세상의 부와 전세로 향하려는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10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부단히 노력하는 중에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성실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 근면 : 공과를 완전히 이해한다

예수는 스스로 근면의 보기를 보이셨다. 예수께서 교육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설명은 없지만 그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누가의 기록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누가 2:40)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선생들을 경악케 하였다고 적고 있다.

성역을 베푸는 중에도 예수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는 권능으로 말씀하셨다. 오늘날에도 유능한 교사라면 준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공과 내용조차 모르면서 성공의 기대를 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실로 예수는 준비란 영감을 받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요소임을 여러번 강조하셨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지 리니”라고(교성 88:78)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마음 속에는 반드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누겠다는 자발적인 의욕이 깃들어야 한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바치겠다고 하는 감동적인 예는 마가의 기록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침례 요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곤하고 분명히 배도 고프셨을 예수는 무리를 떠나 마가에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으리라”(마가 6:31)고 하셨다. 그러나 뒤따라온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가지로 가르치셨던 것이다.”(마가 6:34) 그분의 전도를 위한 노력은 하나님께 대한 부지런하고 비이기적인 봉사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겠다.

### 통찰력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는 일에 성공하려면 준비와 봉사하겠다는 태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 하겠으니 이는 통찰력이다. 인간과 학문의 속성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자기만 학생을 과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여 영적인 감화를 주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예수께서는 이에 관한 훌륭한 예들 많이 보여주셨다. 가르치실때 마다 그 환경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듣는 사람의 약점을 아시는 예수는 그들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셨다. 전혀 모르는 것을 설명하시는데도 그들이 잘 아는 말을 쓰셨다. 농부에게는 씨뿌리는 비유를, 주부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빵에 쓰는 누룩에 비유하셨고, 젊은이에게는 신부의 비유는 통하여 준비의 필요성을 쉽게 강조하셨다. 그런가 하면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려는 말로 부르셨다. 진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굳게 선다든지 겨자씨 만한 신앙이 새가 집을 지을 울창한 나무로 자란다는 식으로 가르치셨다. 참으로 그분이 주신 교훈은 상상력에 가득찬 내용이다.

### 인간의 가치를 높여줌

예수께서는 인간이란 자신이 행동하기 전에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알려고 한다고 가르치셨다. 산상수훈 하나만을 연구하여 보아도 예수가 의로운 행위의 보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하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이다. 그분이 베푸신 성역을 조용히 생각하여 볼 때 인간의 가치를 저락시키지 않고 북돋아 주고 용기를 부여해 주는 가르침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존경과 위엄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영감, 성실, 근면, 통찰력으로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대표자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뒤를 열심히 따를 때 양은 배고프나 먹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



# “...최선을 다 하라...”

리차드 엘. 이반스

● 에머슨\*은 인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들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현재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자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마련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합니다. 자기 자신과 꼭 같이 다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간에 마음과 영혼과 육체적인 요소의 복합체입니다. 계속 배우기는 합시다만 모르는 것이 많고, 계속 훈련하지만 완전한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덕과 인생에 있어서의 참다운 가치가 있는 것에 몰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으며 순간순간의 결정과 선택으로 빚어진 결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위치에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비참한 곳에서 허덕일 수도 있으나 결국 자기 자신을 벗어날 도리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구태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듯한 인상도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적게 활동하자는 주의로 무관심한 가운데 세

월을 보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배우지 않고 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신을 치명적인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에머슨은 “인간은 자기 자신 이외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누군들 배울 기회에 무관심하며, 저속한 행로를 택하며, 율법을 깨뜨리는 일에 빠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먼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도덕을 낮추게 하며, 인간의 영혼, 육체,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며, 아울러 인생이 추구하는 바도 뛰어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배우며 발전하며, 봉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깨끗하며 조용한 양심의 생활, 순결하게 명예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존경과 경건의 태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제일 높은 곳까지 도달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들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우둔하며 근시안적이라고 말하여도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

\*랄프월도 에머슨, 1803~1882. 미국의 수필가, 철학자, 시인

##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 11월 성찬식 성문 봉독

### 장년 주일학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5 : 12)

### 유년 주일학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요한일서 4 : 7)



#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신다

스토판 엘. 리차스

1958년 4월 6일 솔트 레이크 시에서 열린 대회에서 행한 “아버지와 가정”이란 말씀에서 발췌한 것.

●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우리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장 훌륭한 사업에 관하여 몇 말씀 더 강조하며 다소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악한 개미가 인간의 가정 즉 하나님 왕국의 기초를 즐기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미물이 성벽을 헐어내리는 것, 그것보다 더 파괴적인 힘으로 그 세력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시정책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 간단한 말씀

제가 주제로 말씀 드리는 내용이 명령은 아니며 교회의 자매나 저의 말씀을 듣는 여성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몇달 전에 유명한 잡지에 실린 부르크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제신 사무엘의 기사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다시 전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청소년 범죄를 막는 말 세 마디”였습니다. 이를 여기에 적어보면,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기사를 읽으신 분도 많으실 것으로 믿고 또한 시간 관계도 있고 하여 몇몇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21년 동안을 범죄 담당 변호사로 16년을 판사로 봉직한 바 있는 저자가 10대의 범죄 동기에 관하여 오랫동안의 연구와 관찰을 토대로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라파에 들려서도 18세 또는 그 미만의 십대 청소년들의 범죄율을 각 나라 별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	: 성범죄 2%	살인죄 1/2%의
불란서	: 성범죄 7%	살인죄 8%
벨지움	: 성범죄 12%	살인죄 1%
영국	: 성범죄 16%	살인죄 1%
독일	: 성범죄 15%	살인죄 1%

그러나 슬픈 사실은 미국내 전체 성범죄의 35%가 18세 미만이며 살인죄의 12%가 역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10대 범죄자의 비율을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교하여 볼 때 1800% 내지 100%를 증가하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 분은 결론적으로 이 무서운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

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구라파 제국에서의 청소년 범죄율이 낮은 주 원인은 그들이 권위를 존중하며 특히 가정에 있어서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신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저명한 판사가 내린 결론은 교회 밖의 사람에게는 교회 회원인 우리들 보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고 믿습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그 저명한 판사가 제시한 바를 그대로 실행하여 왔습니다. 아버지를 가장의 위치에 놓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숭고하고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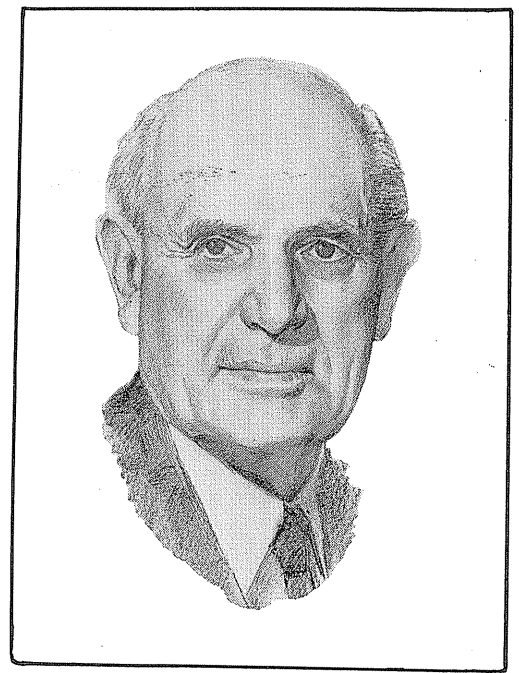
### 부성, 모성 및 가정

여기서 잠깐동안 가정, 부성, 모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상에서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목적을 이해하고 보면 이 보다 더 독자적이며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가정을 훌륭한 남자와 여자가 맺는 영원한 맹약 위에 세워진 성스러운 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영의 자녀가 육신을 입어 영원한 예지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초대된 이 자녀는 건강하게 양육되어야 하며 사랑스럽고 현명한 부모가 이끄는 대로 생활하여 이 생을 마치면 처음 영이 컸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부모는 함께 참여하고 원하기만 하면 이들을 함께 묶는 영원한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맹약에 있어서 일반 기독교식 결혼을 갖는 사람이 잘 모르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권의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즉 신권과 결혼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가정이 영원히 하나로 계속되기 위하여는 성스럽게 위임된 신권의 권능과 인정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둘째, 남자쪽에서 먼저 성신권의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고서는 결혼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의식이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을 위하여 수행될 때 이를 인봉이라 부릅니다. 신전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하고 이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충실하고 합당한 생활을 영위한다면 그 사람이 소유한 신권은 곧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울러 신앙에 가득찬 여자라면 신권을 소유한 남편에게 따르는 존경심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현



명한 아내는 자녀가 존경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의 이메지를 높여주고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지도자적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가족을 유혹의 세계에서 보호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교회의 여성은 남편의 신권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신권이란 불의한 지배나 독재의 형식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 친절, 자비 또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일에만 행사된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성 21 : 43) 신권이란 그 자체내에 참다운 능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압니다. 축복할 수 있는 능력, 병고치는 능력, 충고할 수 있는 능력, 화평과 조화가 감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 남성의 위치를 되찾음

여성이 겪어야 하는 슬픔 중에 가장 큰 것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신권의 길에서 남편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 보아야하는 입장입니다. 아내는 그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신권을 소유한 남편과 하나가 될 때 아내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으며 위안과 인내와 화평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바를 망각하고 자신의 성스러운 부름을 저버릴 때 위안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됩니다. 슬픔에 가득찬 그녀는 기도와 간구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성약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형제님이 계셨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의





아내를 대신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며 의로운 가운데 가족을 이끌 수 있으며 남성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강한 힘의 소유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을 존경하고저 합니다.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 아버지의 이미지를 높인다.

아내나 어머니되시는 분을 대신하여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있어서의 합당한 권위와 인도를 가능케하는 존경심을 유지하거나 새로 생기게 하는 일에 무관심한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훌륭한 분도 많습니다. 그들의 업적에 대하여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가고 있으며 그들의 헌신적인 공헌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훌륭한 자매들이 어머니가 된다면 가정 밖에서 얼마나 잘하는 가는 문제가 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올바른 아내와 현명한 어머니가 되는 것 보다 더 숭고한 부름과 책임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남편을 가장으로 존경하고 자녀 또한 그러한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서두에 인용 소개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명을 백분 이해할 때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판사님?’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당당하게 대어들 어머니가 많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터무니 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쓰지 않을 말입니다. 위에 예로 든 부류에 속하는 어머니는 가정의 분위기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가를 자세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인내심이 강하고 오래 견디며 떨지 않은 장래에 속한 일에는 큰 아량을 보이지만 역시 현재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까지 친절과 인내를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가정 생활에서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 처럼 큰 일은 없습니다. 가정의 다른 부분은 교사하고 가정의 평정을 파괴하고 특히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부모가 서로 어느 정도의 의견 대립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해결하여야 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용서하겠다는 마음과 자기의 하여야 할 바를 안다고 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평에 가득찬 아내라도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을 못살게 굴지는 않습니다. 불평이란 대개가 불필요한 것이며 화평과 조화를 깨뜨리는 요소입니다. 신권으로 뭉친 가정에는 반발과 순종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가정의 위치에 되돌아가게 한다는 생각이 무슨 소설이나 구호는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면 위의 판사가 언급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에베소서 5:22—25)

현세에 주어진 경전에서도 이 기본적인 교리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여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가 착하고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가정의 우두머리를 설정하여 놓으면 가족의 복지를 이룩할 수 있는데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여자가 있

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이나 아버지되는 사람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예가 있지만 그렇다고 원리를 포기하게 하고 자녀들 사이에 선과 덕을 유지할 능력 및 책임을 제거해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아버지가 보여주는 본보기의 위력

일단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면 아버지는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가 인용해온 기사는 나름대로 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청소년 연령에 처한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는 그들이 의지하며 생활하여 갈 표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갖추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건전하고 현명하고 친절할 협조와 교육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회학자나 범죄학자가 제각기 제시하는 이론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을 인도할 수 있는 방편으로는 좀 약하지 않은가 합니다. 수차에 걸쳐 시험해 본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표준은 성스러운 원천에서 오는 의와 진리의 원리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세대에서 자녀에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훌륭한 덕과 행동 규범에 젖을 수 있도록 만들 부모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상류 가문의 젊은이가 사람을 죽여 보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다가 어린 여학생을 살해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대할 것입니다. 확실히 이러한 청소년의 생활훈련에 무엇인가 결여된 것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며칠 전 제이. 에드가 후버씨—미연방수사국장—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에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인용하여 온 잡지에 기고한 빌리 그레햄씨의 “나는 왜 악마의 존재를 믿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든 이유는, 첫째 성경이 악마의 존재를 명백히 설명하고 있다. 둘째 나는 악마의 일을 곳곳에서 보아왔다. 셋째 위대한 학자가 악마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존재와 그의 위치 또한 구원과 생명의 위대한 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빌리 그레햄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몬경, 교리와 성약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인용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적어보면;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

사할 수 없으니, 인간이 쓴 것을 알지 못하면 단 것도 알 수 없는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29:39)

이 밖의 성구도 함께 비교 연구하여 보면 만일 인간이 강한 개성을 개발하고 악에 대항하여 싸울 힘과 계속하여 완전예의 길로 나아갈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는 곧 악의 아버지인 사탄의 영향과 능력에 굴복하고 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식이 있다는 층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일소에 부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의 업적을 적어놓은 기록, 실용성을 증명하는 내용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다른 사람도 자라는 어린이에게 선과 악에 관한 가르침을 전할 수는 있지만 악의 위력과 기술적인 유혹에 항거하는 능력 배양에 대하여 한 가정의 아버지처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모범으로 덕성과 의의 표준을 보이는데 아버지만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서가 하늘의 율법이며 하늘 왕국은 의의 원리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질서가 율법의 순응 또는 가정교육이 없이도 지켜질 수 있습니까? 가정교육은 권위란 문제를 무시하고도 가능합니까? 인간의 기구나 정부에게 인간의 일정한 권위가 주어진다든가 사실이 이상합니까?

### 가정의 질서는 곧 왕국의 질서

지상의 가정에서 보다 하나님 왕국의 질서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사랑과 확신에 찬 태도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축복을 할 당케 만드는 것 보다 더 훌륭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여러분의 가장으로 모시라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인내의 뒷바라지는 필연코 훌륭하고 덕있는 남녀를 길러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동조하리라 믿습니다. 끝없는 평온을 위하여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자녀가 진리와 의를 깨달아 생활에 훌륭한 것을 불러 들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한 인도하셔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인자, 사랑, 위엄, 명예롭게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 청소년 편

### 구세주와 한 약속

더블유. 딘 벨납 박사

● 어떻게 하면 교회의 젊은이들이 영원한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대관장단에서 교회 청소년 협의 위원회와 공동으로 신권 계보 위원회에 준 과제이다. 그리하여 공과 과정 및 의미있는 활동분야에 관하여 젊은이를 돕기 위한 합동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세대의 차이는 영원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이가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면, 즉 자기는 신권의 계열을 밟아 이어진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소위 세대 차이는 없어진다.

세대의 차이는 가인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아담과 이브를 떠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만일 가인이 자신도 훌륭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통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신권의 계열에 복종하기만 하였던들 세대의 차이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세대 차이의 의견대립은 그때를 필두로 현재에까지 계속되어 왔다.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어느 때의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미지와 위치에 관하여, 가족과의 관계 또는 교회나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의 관계에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주님께서 12세의 어린 소년에게 신권과 그에 따르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같은 연령의 소녀는 자신의 생활에 신권의 영향을 이해하고 같은 나이의 소년을 단순히 신권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장차 남편으로서 신권을 나누어 가질 사람으로서 대하여야 한다.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준비 과정에 있는 젊은이라면 전 세계에서 미리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울러 지상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경전을 이해하여야 하며 의미있는 경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훌륭한 동기이며 전생에서 구세주와 맺은 언약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였으며 신권의 권능을 받아들여 이를 하나님 왕국의 건설과 통치에 사용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준비 프로그램은 7살을 기준으로 아론 신권 소유자와 훌륭한 소녀를 배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님의 성전에서 갖게되는 해의 영광 또는 영원한 결혼은 미래는 물론 과거에 까지도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어린시절에 신권의 기능하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하여 벨기세택 신권의 맹약을 할 수 있고 구세주와 함께 왕국 건설의 협조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훈련 프로그램에서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어린이가 계보 및 신전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영원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집사와 꿀벌반 소녀에게는 부모의 협조를 얻어 일평생 계속될 도구인 기억의 책을 마련토록 한다. 가능하다면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

장미, 월계반, 교사, 제사를 위한 프로그램은 영원한 가족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젊은이를 계몽하여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기 위한 준비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신전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는 후세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랑의 개념과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가족의 영원성을 이해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위대한 유산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만형인 구세주에게서 뿐만 아니라 지상의 부모에게서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라고 있다. 이 사랑의 은사를 포함한 제 은사란 유산은 영원한 가족의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것이다.

○

# 용기라는 이름의 산에 올라

웨인 린

● 어떤 이는 이제 영웅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오늘날의 젊은이는 젊은이다운 용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저는 제 심장을 뛰게하고 목이 메이도록 놀라운 용기를 보여 준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그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장하다! 장하다!”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블타는 고층건물의 치솟는 불꽃 속이나 홍수로 노도같이 밀리는 강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용기도 아니었고 어린 아이를 구출하려 질주하는 자동차 앞으로 돌진하거나 싸움 잘하는 전달의 기세를 꺾으려고 보이는 그런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보다는 더 평범한 곳에서 일어났으며, 어떻게 보면 가장 영웅다운 행동이 나타난 곳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은 무더운 칠월의 어느 날 오후 스테이크 신권회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이 꽉 들어찼는가 하면 대회 참석자들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상향회실로 연결된 칸막이 문은 모두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존경하는 스테이크 부장님이 감리하시고 스테이크 행사를 하실 때에 특별히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겨우 제사 신권의 연령 밖에 되지 않은 한 젊은이가 스테이크 부장단 가까이 여러 사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언뜻 그가 어떤 순서를 맡은 줄 짐작하고 몹시 가슴을 조이고 있는 그의 표정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스테이크 부장님은 다음 차례로 그 젊은이가 말씀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젊은이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단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는 걸음으로 매우 침착해 보였지만 저는 다행히 앞자리에 앉아서 이 젊은이가 두려워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젊은이가 쪽지에 적은 것을 들여다 보고 말씀하기에 조금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때에 젊은이의 이야기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너무 급히 하여 같은 말이 필요 없이 되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을 하던 중에 그만 젊은이는 더듬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조하여 계속 말을 더듬더니 결국 말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당 안은 젊은이를 동정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에게 안도감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정과 이해를 하고 있다는 표시를 주고 싶었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 처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리를 물러나고 다른 날로 말씀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 젊은이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역역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는 어깨를 펴고 다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위해 정신을 가다듬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제가 분명한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천천히 신중한 태도로 말을 계속하기 시작하였고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음성엔 울려 제 영혼을 떨게하는 멧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겨 준 그 젊은이가 전한 멧세지입니다.

이제 또다시 이와 같이 어려운 임무를 제가 감당해야 할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용감한 젊은이가 빛내 준 길에서 몇 걸음 진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가 도덕적인 용기의 산 위에 올라 가파른 낭떠러지에 서서도 굽힐줄 모르고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는 곧 끝나 그는 쪽지에 적은 것을 가지고 설교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흰 셔츠를 입은 젊은이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허리에 검을 차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개선장군으로 보였습니다. 이 때에 힘찬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가가 귓가에 들리듯 그 가사가 마음 깊숙히 감동을 일으키며 떠올랐습니다. “보라 당당한 군대, 깃발 휘날리며, 인생의 전쟁 마당에 승리 행진하네. 단결되고 강하고 대담한 용사들, 주 예수 대장되니 두려울 것 없네. 이기세, 이기세, 우리 구원했으니,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기세 이기세!”

만일 용사들이 이와 같은 젊은이들로 무장이 된다면 반드시 개선의 노래를 들을 것입니다. ○

작자 웨인 비. 린은 남부 아리조나 주 인디안 세미나리 지방부의 회장. 현재 메사 제25와드 주일학교 교사 아홉자녀의 아버지.





## 최후의 시도

칼스 알. 퍼든

● 어느 무덥고 긴 날이었습니다. 해는 수평선 아래로 기울어지고 저녁 어둠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선교하러 다니던 두 선교사에겐 저녁은 위안을 주었으며 그들은 시원한 목욕과 풍성한 저녁 식사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이 탄 차가 먼지 자욱한 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갈래길이 있는 건너편에 멈췄습니다. 자욱히 일어나는 먼지 속으로 두 선교사는 언덕쪽으로 뚫린 갈래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샘씨 맥에 다닌지가 얼마나 되지?” 그 중 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벌써 삼 주일이나 됐어.” 동반자가 대답했습니다.

샘씨는 어찌해서 교회가 경험이 적고 미숙한 젊은이들을 보내어 하나님에 대해 전도하러 시골길을 다니게 하는지도 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몇번인가 말했습니다. 샘씨는 인간적인 면에서 두 선교사를 존경하였지만 그들이 무엇인가 애써 말하려고 하면 교묘한 방법으로 잠자기가 보통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와 함께 몇번이나 복음 토론을 시작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그때마다 그는 다른 데 불일이 있다는 구실로 거절했습니다.

두 선교사는 같이 샘씨 맥으로 가는 꼬불꼬불한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샘씨 가족을 만나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때는 너무 늦어 샘씨 맥에 다달으면

어두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샘씨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넘어간 때라 편안히 쉬고 있으리라. 그리고 선교사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벌써 두 주일이 지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샘씨는 가족과 함께 저녁 일을 하고 있거나 않을까? 혹시 식사중이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마치 그가 할 일 없이 나무 밑에 앉아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선교사는 샘씨가 자기들을 반겨 줄지 어떨지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이같이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그들은 샘씨를 못 본체하고 지날 생각은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때로 돌아간다면 두 선교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샘씨 가족은 여름을 나기 위해서 조금 높은 지대로 집을 옮겼는데 그곳으로 여행하려면 길도 멀고 먼지가 많아 매우 불편했습니다. 두 선교사가 샘씨 맥에 도착했을 때 언덕 바지에는 석양 빛이 비쳤습니다.

샘씨는 두 선교사가 자기 집 바로 옆에 차를 세울 때 새로 여름 동안을 위해 지은 가축 우리 안에 양떼를 몰아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 옆으로 지나치며 몇마디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그 곳에 익숙하지 못해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그에게는 자기를 변명할 좋은 구실이 되었습니다.

두 선교사는 양떼가 우리를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 것을 보고 조금만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려 양떼가 흩어지지 않게 막아 섰습니다. 썬씨는 자기와 함께 양떼를 몰고 있는 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고 의심스럽다기 보다는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행동을 찬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떼를 우리 속에 다 몰아 넣을 때쯤 썬씨 부인과 두 아들이 말을 타고 자기들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썬씨는 먼저 그 부인과 아들을 보고난 뒤 두 선교사를 바라보며 “같이 집으로 가서 기도를 드립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교사들을 약간 놀라게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그의 가족들이 그처럼 그에게 기도해줄 것을 부탁드렸지만 썬씨는 일체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선교사는 이제 그만 돌아가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모두가 아무 말이 없는 것을 알고 두 선교사는 가족들에게 복음 공부를 해보시지 않겠느냐고 물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에 썬씨는 부인과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복음 공부를 할 것을 승락했습니다. 그러자 두 선교사는 민첩하게 손가방을 열어 그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을 때에는 마룻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복음 공부를 하면서 두 선교사는 썬씨와 그 가족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연 질문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를

마칠 때 가족 중에서 질문을 하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들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이는 보였을지라도 선교사들은 거절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끝난 다음 두 선교사는 다음 약속을 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준 데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썬씨는 선교사들을 문까지 바래다 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고 선교사들에게 잘가라는 인사 표시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막 어두운 바깥으로 나가려 할 때에 그는 선교사들을 불러 세우며 “나는 물론에게서 이제까지 한번도 본 일이 없는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 같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소. 언제든지 오십시오. 정말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선교사는 자기들의 숙소로 돌아 오면서 마치 높은 장벽을 넘어선 것 것같이 느꼈습니다. 한 선교사가 동반자를 쳐다보며 기쁨에 넘친 음성으로 “이봐, 오늘 저녁은 베가 지을 차례지?”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 차례야.” 동반자가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올까봐 “어제 내게 준 삶은 콩이 남아 있지?”하고 덧붙였습니다. ○

찰스 알. 퍼튼. 유타 주 그랜저 제20와드 주일학교 감독단의 일원. 이 이야기는 그가 남서부 인디안 지역 선교사로 있을 당시의 경험담입니다.





# 자격있는 자가 되며

리차드 엘. 이반스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말은 죠지 엘리웃<sup>1</sup>이 한 말로서 우리에게 매우 함축성있는 말로 들립니다. 특히 이 말은 생에서 준비하는 시기에 놓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인생은 짧고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책임은 불어나고 준비할 기회는 적어지는데 젊은이들이 재능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장래에 가질 직업이나 보다 큰 인생의 임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회를 도외시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 배울 기회를 가진 자가 도중에서 떠나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좌절감이나 실망 속에 자신을 내버리고 있는지 그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손, 마음, 근육, 정신, 즐겨 준비하며, 기꺼이 일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심령 속에 학문의 축복과 훌륭한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매진하는 축복과 자격있는 자가 되며, 경기 변동의 순환처럼 노쇠하는 인생의 노년기에 닥쳐올 허무감을 맛보지 않을 축복을 십어 줄 수 있다면 날로 증대하는 지속적이며, 만족스러운 봉사를 위해서 생명, 마음, 시간과 재능은 가능한 알맞는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기회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데 있다.”고 디즈레일리<sup>2</sup>는 말했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에게 자기의 학문을 추구하고, 준비하며, 가장 훌륭하게 자신을 발전시키며, 인생과 배움과 생활을 위해 능력과 자격을 갖추며, 사물을 더 깊이 알고 훌륭하게 행동하며, 무엇인가 주려고 하며,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으며, 보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유익한 인물이 되며, 또한 자신을 위해 봉사하며, 남이 필요로 하고, 원하며, 남에게서 받는 감사와 보상으로 큰 만족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1. 죠지 엘리웃, (매리 앤 이반스의 아명) 1819—1880, 영국작가.  
2. 벤자민 디즈레일리, 1804—1881, 대영제국 정치가며 소설가.